

장백산천지

제 83 호

2008년 5월 2일

금요일

중공은 왜 《9 평》을 감히 응대 못하는가? (현재 1)



2004년 말에 대기원시보사설 《9 평공산당》이 발표되었다. 《9 평》은 전면적이고도 계통적으로 중공이 한세기동안 위조하고 산포한 거짓말과 각종 죄행을 폭로하고 중공의 사악한 본질을 밝혔으며 중공멸망의 필연성을 제시했다. 《9 평》은 오래동안 중공의 거짓말에 속히우고 폭력에 짓눌렸던 광대한 민중들을 각성시켰다. 이리하여 중국대지에 중공의 조직에서 탈퇴하는 대조류가 일어났다.

워낙 싸우기를 좋아하고 대비판에 능숙한 중공은 왜 2004년부터 오늘까지 3년남짓한 동안에 《9 평》에 대해 한마디도 응대못하고 꿀먹은 벙어리처럼 랭가슴만 알고 있는가? 그래 죄를 승인해서인가? 아니면 반박할 방법이 없어서인가? 아니다. 《9 평》은 중공의 요해처를 찔렀을 뿐만아니라 거짓허울을 벗겨버려 그의 사악한 진면모를 보게 했다. 《9 평》의 매구절마다 모두 진실한 사실이고 도리가 있어 중공은 반박할래야 반박할수 없다. 또한 중공은 괴변이라도 해보고 싶어도 괴변할수 없다. 왜냐하면 일단 중공이 《9 평》이란 말만 꺼냈다가는 아직 모르고 있는 백성들까지 《9 평》을 읽어보고 시비를 가르게 될가 몹시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이다. 곤경에 빠진 중공은 《타조정책》을 쓰면서 암암리에 《9 평》의 전파를 봉쇄하고 저애하고 있다.

아래에 편폭이 많은 《9 평》 내용중에서 몇토막 내용만 선재하니 참조하기 바란다.

《제 2 평》에서 중공의 부끄러운 과거사중의 하나인 가짜항일을 이렇게 폭로했다.

“중국 공산당 교과서는 공산당이 항일전쟁의 승리를 지도했다고 한다. 그러나 사실상 항일전쟁이 발발할 당시 국민당은 170여만 군대, 11만톤 규모의 군함, 각종 비행기 600대가 있었다. 그러나 공산당은 1937년 11월에 개편한 신사군(新四軍)을 합해도 총 병력이 여전히 7만에도 못 미쳤다. …… 공산당은 비록 항일(抗日)이란 큰 깃발을 높이 들었지만, 전방에서 전투에 참가하지는 않으면서 후방에서는 도리어 지방군과 유격대를 흡수하였다. 평형관(平型關) 전투를 비롯한 손가락에 꾹을 정도의 몇 차례 항일전투를 제외하고 공산당의 항일전투성적은 말할 것이 없다. 다만 공산당의 세력을 확대하고 일본이 투항할 때 항복한 일본군을 빼앗아 자신을 확대하여 90여만 명의 정규군과 200만 민병(民兵)을 지닌 강대한 역량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항일의 정규전투는 전부 국민당 군대에게 남겨두어, 국민당은 전사한 장군만 200여 명에 달했으나 공산당 지휘관은 거의 손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공산당의 교과서는 줄곧 국민들에게 국민당은 항일하지 않았으며 공산당이 항일전쟁의 위대한 승리를 지도했다고 말해왔다.”

《다음호에 계속》

샌프란시스코에서 3,600만

중국인의 퇴당을 경축



지난 4월 26일 점심, 샌프란시스코의 각계 인사들이 중국성화원각광장에 모여 3,600만 중국인이 중공에서 퇴출함을 경축했다.



영예를 안고 귀국한 신운예술단



파룬궁학원들로 구성된 신운예술단은 유럽의 12개 나라와 17개 도시에서 45차례의 공연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지난 4월 20일 오후 4시 뉴욕 케네디국제공항에 도착했다.

신운예술단 부단장 관귀민은 《이번 신운예술단의 유럽 공연은 성공적이였으며 관중들의 호평을 받았다.》고 말했다.

참석한 귀빈들의 절찬을 받은 파룬궁공법



지난 4월 12일, 대만신죽시남악국소 개교기념일에 전교



박해 받아 비참히 세상 뜯 요삼중

하남성루하(漂河)시 예술사법학교 음악교원 요삼중(姚三忠)은 (왼쪽 사진) 2007년 7월, 하남성허창시제 3로교소에 3년 동안 갇혀 전기충격, 구타, 바줄조이기 등 모진 혹형과 시달림을 받았다. 더욱 악독한 것은 악경들은 그가 음악교원이라는 것을 알고 밸로 인후를 밸로 차서 성대가 끊어져 발성하지 못



폭로 연변박해소식

■ 지난 4월 16일 저녁 7시, 도문시신화변강파출소 3명 경찰들이 도문시파룬궁학원 구춘매(翟春梅)집에 뛰여들어 집수색하여 사존법상, 대법책, 명혜주간 등을 빼앗아갔고 구춘매를 랍치해갔다. 이튿날 그를 도문시안산파출소에 가두었다.

■ 지난 4월 23일 오후 5시경에 도문시공안국보대대 악경들은 석현파출소 악경들과 결탁하여 석현파룬궁학원 왕염하(王艳霞)、안풍전(安丰全)、조광명(曹光明)、장경군(张庆军)、장수화(张淑华)부부、왕옥하(王玉霞)를 랍치했는데 며칠후 왕염하、안풍전、왕옥하는 풀려나왔으나 조광명、장경군、장수화부부는 지금 도문시간수소에 갇혀있다.

사생들이 참가한 파룬궁공법 표현은 제일 인기를 끌었다. 상서롭고도 자비로운 련공음악소리에 맞추어 펼쳐진 우아하고도 유연한 련공동작은 참석한 귀빈들의 절찬을 받았다.

하게 했다. 2002년 12월에 악경들은 오래동안 박해를 받아 거의 죽게 된 그를 길가에 내던졌다. 가족들은 그를 병원구급실에 호송하여 진단해보니 내장기관이 죄다 쇠약해지고 어떤 것은 파손되어 치료할 수 없었다. 2003년 1월, 그는 비참하게 세상을 떴다.

모든 선량한 사람들은 일거나 이 비인간적인 중공의 박해를 제지시킬 것을 호소하는 바이다.

■ 지난 4월 23일 밤 8시경에 도문시홍광향파출소 악경들이 도문시파룬궁학원 양춘려(杨春丽)집에 뛰여들어 집수색을 하여 사존법상을 몰수했으며 그를 랍치하여 도문시간수소에 가두었다. 그리고 그날밤 또 파룬궁학원 장소려(臧小丽)를 불잡아갔다.

■ 지난 4월 24일 8시, 왕청파룬궁학원 왕숙분(王淑芬)은 악경들에게 집수색을 당하고 랍치되었다.

■ 지난 4월 25일 돈화시파룬궁학원 왕사해(王四海)는 악경들에게 재차 랍치되어 돈화시간수소에 갇혔다.

■ 지난 4월 25일, 안도현량강중학교 파룬궁학원 왕채하(王彩霞)는 량강파출소 악경들에게 랍치되어 지금 안도현간수소에 갇혀있다.

올림픽 명장

황효민의 퇴당성명



1. 중국국가팀수영선수황효민은 올림픽 은메달 1개, 세계컵 금메달 11개



2. 황효민은 1998년 서울 올림픽 여자 200미터와영경 기에서 은메달을 탔다. 귀국 후 조직에서는 그를 《전선입당》을 시켰다.



3. 중공매체에서는 황효민이 얻은 이러한 성적은 공산당에게 돌려야 하며 공산당이 배양한 결과라고 선전했다.



4. 황효민은 《9 평공산당》을 읽고나서 중공의 사악한 본성을 똑똑히 인식하고 2004년 12월 12일에 대기원에 퇴당성명을 발표했다.